

명현관 해남군수 “주마가편 자세…지역 핵심사업 추진”

내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역대 최대 268건 신규시책 발굴 미래성장동력 확보 ‘2030프로젝트’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해남군이 내년 군정의 핵심사업들을 점검하는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착수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명현관 해남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실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6개 실과소와 3개 출연기관에 대해 2025년 중점 추진할 419건의 역점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해남군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선 7-8기 역점 추진해온 주요 사

업들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만큼 군민들의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되돌려질 수 있도록 핵심 사업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2025년은 민선 7-8기 핵심사업들이 완성돼 가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주변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돌파하는 성장 전략과 미래 장기성장동력의 확보를 목표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해남군이 지난 2-4일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군의 내년 주요 사업은 미래성장동

력을 확보하는 200 프로젝트의 역점 추진과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지역경

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양대 특구를 거머쥔 행정의 속도감을 더욱 높여 국립농식품후원화대응센터 및 농업클러스터 조성, 화원산단 풍력배후단지 조성, 고속도로 예타통과에 이은 고속철도 해남노선 국가철도계획 반영 등 지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국책사업들에 대한 굵직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전국 최고 농업업군의 위상을 살려 ‘농어촌수도 해남’에 대한 비전을 제시,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주요 작목에 대한 선도적이고 실현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사업들이 펼쳐진다.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생활

인구 유지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청년 세대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보육체계의 재편, 해남에 살고 있고, 살아갈 한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군정의 안전망 구축, 읍면간 균형있고 활력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분야별 주요 사업들도 꼼꼼히 시행한다.

명현관 군수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인 268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등 민선 8기 후반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군정에 임할 방침”이라며 “내년 여러 내외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군민이 더 행복한 2025년을 만들기 위해 주요 공약사업과 역점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군이 오는 8일 영암F1경주장에서 다양한 코스를 구성한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영암군 제공>

전국 마라토너들…“영암 자동차 경주장 달린다”

8일 영암 F1경주장서 모터피아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영암군이 오는 8일 영암F1경주장에서 ‘모터피아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지역특화스포츠기반 조성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 등 3천여명이 참가해 자동차경주 서킷 등을 달리며 특별한 도전에 나선다.

종목은 하프코스 21.0975km, 단속코스 10km, 건강달리기를 위한 자동차경주장 한바퀴 코스 5.615km 등 다양하게 구

성대 참가자들이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코스별로 5일까지 시상금을 지급하며, 6-20위는 영암특산물 달마지쌀을 부상으로 준다. 최다 참가단체 5위까지는 추가로 특별상을 수여한다.

참가 기념품은 티셔츠, 배너, 기록칩, 완주메달, 영암사랑상품권, 영암쌀, 대보감 말랭이, 간식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마라톤 참가자와 관람객이 영암F1경주장 주차장과 대회 트랙을 오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 5대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 푸드트럭존 운영 등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영암군은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5대의 구급 차량, 60명의 운영 요원, 100명의 보조 요원 등을 대회장 안팎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명선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장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유일 F1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라며 “지역 우수 인프라인 F1경주장을 활용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틈새 돌봄 강화 ‘돌봄센터 설치’ 확대

6-12세 아동 대상 공백 해소

무안군은 5일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사업이다.

최근 무안북합문화센터 5층에 신규

설치된 무안희망다함께돌봄센터(4호점)는 놀이, 학습,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정원은 20명이다.

입소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

우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저학년 순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 이용이 가능하다.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2022년 6월 1호점 이후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약사항 이행률 130%를 목표로 총 8개소를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고 지속적인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완도군,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대상

인터넷 밈 등 인기 끌어…카카오톡 채널 부문 ‘최우수상’도 수상

완도군은 5일 “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과 카카오톡 채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올해의 SNS”는 매년 SNS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등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

원한다. 완도군 유튜브는 해양치유 등 군 역점 사업과 관광, 특산물, 축제·행사, 생활정보 등을 기존 홍보 영상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인기 프로그램 패러디, 인터넷 밈 등 최신 유행하는 콘텐츠로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튜브의 차별성을 두고자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친근감 있고 재미

있게 영상을 제작해 화제가 됐다.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지난 대비 104% 이상 급증했고 구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천172명이 늘었다.

카카오톡 채널 ‘희망완도’는 한 달에 2-3회 군정 소식, 축제, 각종 정보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군민 수요에 맞춰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만의 차별화된 SNS 콘텐츠를 제작·확산해 군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빠르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고령자 이동 편의 마을 안길 정비

290개 마을·250km 구간 연차적…이동 잦은 곳 우선 순위

신안군이 고령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마을 안길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0% 이상을 차지해 2018년부터 노후되고 파손된 마을안길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수요 조사를 거쳐 200개 마을, 250km 구간을 2019년부터 착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콘크리트로 형성돼 파손된 부위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행보조차의 이동이 어려운 안길을 아스콘으로 덧씌워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183억원이 투입됐으며 150개 마을, 약 162km를 정비했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은 단순 도로 정비를 떠나 넘어져 골절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잦은 요철로 인한 이동불편과 소음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장기적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은 고령의 주민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을 우선 순위로 선정했으며, 차순위로 경사가 급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집중된 곳을 정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 취지의 시너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 마을에 색을 더하고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안길이 새로 정비돼 불안했던 어르신들의 이동에 시름을 조금이나마 놓았다”며 쾌적해진 마을을 보며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고령의 지역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군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준 소중한 이들”이라며 “좁은 담장 사이까지도 곳곳 돌아보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지속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구축 ‘박차’

실무추진단 정기회의…아동 권리 실현 등 체계 구축

영광군이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5일 “지난 2일 군정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권리 실현과 지역사회 내 아동친화 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자리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은 2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아동참여위원회 등 자문단의 지원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실무추진단 운영계획 및 역할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검토 ▲4개년 추진을 위한 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이 다뤄졌다.

특히 실무추진단은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에서 부서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청년분과, 목포·신안 청년 소통 강화 워크숍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청년분과 위원회가 목포, 신안 지역의 청년들과 상호 소통을 강화하며 통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목포·신안 청년 한가족 화합 워크숍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안지역 청년 농가모임과 자매결연, 청년분과 신규 위원 위촉에 이어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교육, 청년 창업사 레망 발표, 청년분과 2024년도 활동 보고와 내년도 통합 추진 사업 계획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내년도 통추위 청년분과 사업에서 농활 등의 협력 사업과 함께 청년 중심의 통합 상생교류 및 홍보 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광욱 청년분과위원장은 “목포·신안 청년 한가족 화합 워크숍을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며 “내년에도 청년분과 위원들이 신안군과 지속적인 지원 관계를 통해 목포·신안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청년분과 위원회에서는 신안군 대공해수육장 환경정화 활동, 목포신안 청년 친선 축구대회 등을 통해 두 지역 청년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